

# 林産副産物の生産現況과 増産方案

山林組合中央會

洪 淳 吉

## 1. 現 況

### 가. 林産副産物の 概念

一般的으로 山林에서 生産되는 産物中 用材와 薪炭材를 除外한 모든 産物을 林産副産物로 取扱하고 있으며 日本에서는 竹材·梧桐材는 그 用途와 時代變遷으로 副産物로 取扱하고 있으며 호도·은행·밤 등은 林産物과 園藝作物의 兩部分에서, 楮皮·三亞皮 등은 工藝物이라 하여 農産物로 取扱되고 있다.

### 나. 우리나라의 林産額

近來 우리나라의 林産額은 다음과 같으며 主産物과 副産物의 比率은 1.1 對 8.9로서(日本の 境遇 7 對 3) 主産物인 用材生産이 極히 貧弱함을 엿 볼 수 있다.

表 1. '79~'81 林 産 額 (單位:百萬元)

區 分	1979	1980	1981
計	278,393.4	376,013.4	449,580.7(100)
主産物	34,388.9	39,611.8	49,455.1(11)
副産物	244,004.5	336,401.6	400,125.6(89)

### 다. 副産物의 林産額

1981年度의 副産物의 林産額 4,001億원中 綠肥·堆肥原料·飼料 등의 所謂 農用資材가 2,301億원(57.5%)을 占有하고, 土石類가 536億원(13.4%), 種子類와 林産燃料가 各 460億원(11.5%), 枹고·松栴·느타리 등의 버섯類가 175億원(4.4%) 그리고 藥草類·섬유原料·樹脂類·탄닌原料 및 其他가 693億원(1.7%)으로 發表되어 있음.

### 라. 林産物輸出

우리나라 林産物輸出은 年間 7億 \$線이나 近來에

는 6億 \$線으로 減少되고 있는바 이는 全體 林産物 輸出의 75%線을 차지하고 있는 合板과 製材木 및 木製品의 輸出이 世界的인 景氣不況에 따른 輸出不振에 起因되며 石材類·버섯類 樹實類·壁紙類 등은 그런대로 1.6億 \$線이 維持되고 있다.

우리나라 全體輸出에 對하여 林産物이 차지하는 比率은 다음과 같으며 10億 \$이 達成되던 年度인 1970년에는 林産物輸出이 1億 \$로 10%의 比率이었으나 100億 \$이 達成된 年度인 1977年度에는 6億 \$에서 6%, 그리고 210億 \$을 達成한 1981 年度에는 6.3億 \$로서 3%에 不過하며 漸次 林産物의 占有比率이 減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表 2. 全輸出額對比 林産物輸出의 占有率

(單位:百萬 \$)

區 分	年 度	全體輸出	林 産 物 輸 出	林 産 物 輸 出 占 有 率
10億 \$	1970	1,004	100	10.0%
50 "	1975	5,427	294	5.4
100 "	1977	10,046	606	6.0
150 "	1979	15,064	737	4.9
200 "	1980	17,505	629	3.6
	1981	21,074	631	3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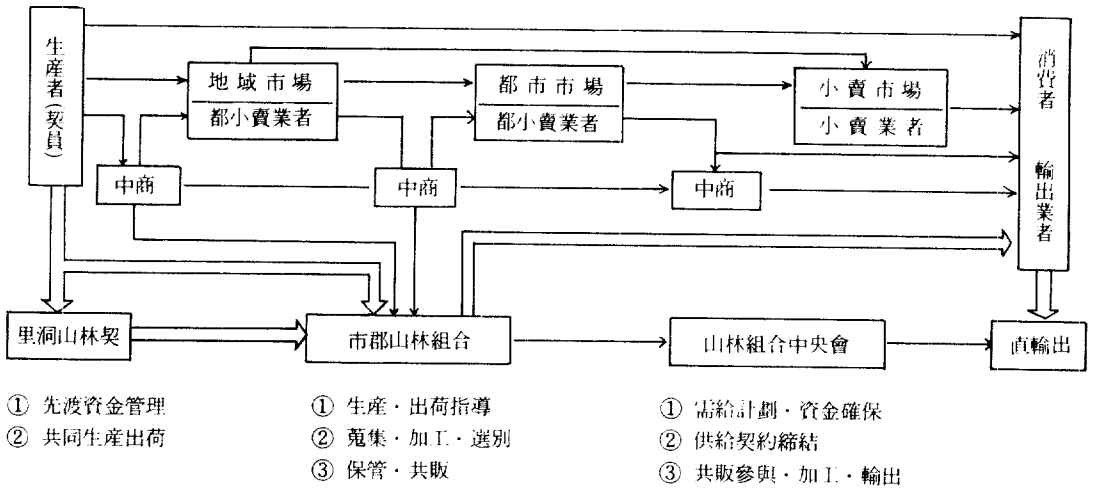
### 마. 主要林産副産物의 生産需給

山野에 널리 分布된 많은 賦存資源中 農山民의 所得向上과 輸出品目으로서 各광을 받을 뿐 아니라 그 流通構造도 比較的 體系化되고 있는 몇 品目에 對하여 年度別 生産量 所得額 및 輸出에 寄與된 現況 그리고 流通構造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.

#### (1) 葛苧·골皮

칙닝쿨의 內皮인 葛草와 굴참나무의 樹皮를 原料로 한 加工製品은 主로 壁紙類로서 數年前까지는 韓

表 3. 林産副産物의 流通構造



國 特産品으로 海外市場을 獨占하고 있었으나 近來에 와서는 中共産과 地中海沿岸國産(포르투갈)의 大量低價出荷・國內勞賃의 急上昇 등으로 因한 原價上

昇과 景氣不況, 그리고 化學製의 代用品出荷 등으로 輸出需要가 激減되고 있다.

表 4. 葛苧·굴皮의 前年別 生産·所得 및 輸出

區	分	生産体系 一元化前	'70	'75	'78	'81
		(69年)				
葛苧	生産量(M/T)	239.4	381.0	392.1	328.7	134.0
	所得額(百萬圓)	90.6	203.2	664.0	805.0	628.7
	輸出額(百萬圓)	2.6	4.1	12.0	11.5	11.0
		(62年)				
굴皮	生産量(M/T)	2,080	856.0	817.0	790.0	281.0
	所得額(百萬圓)	9.7	12.9	32.7	60.6	56.9

表 5. 松楡 및 표고버섯의 年度別 生産·所得 및 輸出

區	分	生産体系 一元化前	'70	'75	'78	'81
		(69年)				
松楡	生産量(M/T)	140.1	189.0	499.0	983.2	492.0
	所得額(百萬圓)	70.1	189.0	2,048.5	6,149.1	9,840.0
	輸出額(百萬\$)	0.4	0.6	6.3	25.9	16.8
		(64年)				
표고버섯	生産量(M/T)	76.0	187.0	456.0	776.0	952.0
	所得額(百萬圓)	40.0	243.1	1,778.4	5,432.0	7,616.0
	輸出額(百萬\$)	0.3	0.7	3.8	9.1	5.9

(2) 버섯類

松栢과 표고버섯은 國內需要에 있어서도 漸次 增加되고 있을 뿐 아니라 輸出需要 또한 景氣不況에도 不拘하고 增大되고 있으나 北韓 및 中共 等の 第三國産이 大量低價 投資現狀이 두드러져 이들 商品과의 市場競爭力強化(加工技術의 研究開發, 品質向上, 原價節減 等)가 時急한 實情이다.

특히 81年度 표고輸出実績의 激減原因은 主輸出市場인 台灣의 輸入政策變更改와 日本의 豊作과 大量輸出(3,700MK)로 因한 國際價格의 30% 引下 等に 起因되고 있음.

(3) 떡갈잎 · 멩개잎 · 잔디種子

떡갈나무의 잎과 멩개덩쿨의 잎을 適期(5~7月)에

採取 加工輸出로 年間 7億원의 國民所得과 200萬\$의 外貨獲得을 거두고 있으나 輸入需要가 日本國에 局限되고 日本國의 年間需要量의 90% 以上을 韓國産으로 充當하고 있는데 앞으로 製品의 多樣化 等으로 品質向上에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, 잔디種子에 있어서는 種子에 依한 잔디栽培擴大로 國內의 으로는 '86 아세안 및 '88 올림픽 게임 對備와 自然生잔디의 亂採防止上으로도 매우 바람직하며 需要가 急增하고 있을 뿐 아니라 外國에서도 우리나라 들잔디(野芝)의 特性과 種子에 依한 잔디造成方法의 轉受로 그 容易性이 認定되어 그 輸入需要가 增加一路에 있으나 資源의 減少와 勞賃의 上昇 等으로 因하여 充足치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.

表 6. 떡갈잎 · 멩개잎 · 잔디씨의 年度別 生産 所得 및 輸出

區 分	生産体系前 (68年)	1970	1975	1978	1981	
떡갈잎 멩개잎	生産量(千C/T)	17.0	14.3	40.6	53.8	69.9
	所得額(百萬원)	8.5	13.6	58.6	240.0	744.0
	輸出額(百萬\$)	0.086	0.089	0.370	0.990	2.031
	(72年)	(73年)	(74年)	(生産体系開放)		
잔디씨	生産量(M/T)	30.0	639.0	380.6	27.5	9.0
	所得額(百萬원)	15.0	549.5	389.5	25.4	25.2
	輸出額(百萬\$)	0.050	2.170	1.495	0.066	0.080

2. 林産副産物の 増産과 需給上的 問題點

가. 對內的인 問題

- 漸次的인 資源의 減少
- 勞賃의 急上昇과 勞動力의 激減
- 貯藏 및 加工 等の 施設과 技術의 研究開發 不足
- 振興政策과 專門的인 研究未洽
- 收買 및 備蓄資金의 不足
- 流通體系의 未備로 中間商人 介在와 業者間的 過多競爭으로 去來秩序문란

나. 對外的인 問題點

- 主市場인 日本國에 北韓 및 中共産 等の 第三國産物의 進出이 增加.
- 특히 北韓産의 低價委託投資로 因한 韓國産의 市場競爭力이 弱화되고 있으며 日本의 既存輸入商은 北韓 및 中共産 輸入과 取扱움직임.
- 더우기 멀지 않은 將來에 東京-平壤-北韓間的

民間航路의 開設이 豫想되고 있음.

그 例로서 松栢버섯의 日本國에서의 輸入과 去來價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表 7. 松栢버섯의 國別輸入量

區 分	1977	1978	1979	1980	1981
	M/T				
韓 國 産	254	721	360	234	492
北 韓 産	3	76	6	115	276
美 國 産	2	4	1	1	(10)
카나다産	—	2	8	9	(20)
中 共 産	—	—	2	3	(70)

(註)

- (1) 北韓産은 平壤→北京→日本, 平壤→블라디보스톡→日本의 航空 Root 및 元山港→新灣港의 쾌속정(Refrigerator-Container) 輸送.
- (2) 日本輸入商들은 캐나다와 美國 等に 進出하여 直接採取輸入을 시도하고 있음.
- (3) 北韓·中共 等에서는 鹽藏 및 통조림 等を 直接 加工生産 輸入中에 있음.

이와 같이 各國에서 輸入한 松栉의 日本國內에서의 平均去來價格(都賣)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日本産 松栉는 韓國産보다 平均 30~40% 高價로 去來되고 있음은 新鮮度(香氣)와 嚴選小包裝 外에도 他國産에 對한 自國産의 優越視하는 慣習이라 하겠다.

表 8. 國別 松栉 去來價格

區 分	1977	1978	1979	1980	1981
韓 國 産	9,168	5,959	9,582	11,209	9,904
北 韓 産	5,611	3,827	2,654	2,851	2,705
美 國 産	3,212	2,348	3,932	6,130	6,529
카 다 나 産	—	3,160	4,925	3,344	5,705
中 共 産	—	—	4,399	(5,000)	4,733

### 3. 増産方案(對策)

#### 가. 資源保護増産

- 赤松林의 保護로 松栉의 保續生産을 圖謀하여 年間 100億원의 農民所得과 2,000萬\$線의 外貨獲得.
- 闊葉樹林의 保育으로 버섯生産用 資木으로 活用.

## 燃 料 林

#### A. 燃料林造成現況

表 9 造成實績

造成年度	造成面積 千ha	事 業 費				備 考
		計	國 産	地方費	自 力	
	百萬元					
計	643	18,425	7,258	490	10,677	
1959~1967	435	—	—	—	—	里洞山林契員 動員으로 行政機關에서 實行
1973~1977	208	18,425	7,258	490	10,677	山林組合專担實行

(註) 1. 1968~1972年 150千ha 補植造林 2. 1978~1979年 15千ha 補植造林

#### B. 燃料林 實態調査

1981年度에 643千ha의 全燃料林의 實態를 一齊 調査하여 506千ha를 今後 繼續 存置管理面積으로

#### 나. 資金確保

- 貯藏·加工施設資金과 生産·貯藏·加工技術 開發費는 全額 國庫에서 支援.
- 收買備蓄 및 流通資金은 中長期性的의 融資金確保.

#### 다. 生産加工技術開發

- 原價節減으로 生産性을 提高하는 同時에 勞動力減少에 對處하기 爲한 省力生産法의 開發이 要望됨.
- 商品價値의 提高와 市場競爭力強化를 爲한 品質向上에 力點을 傾注.
- 他産業에 버금가는 所得이 保障되어 生産意慾을 높혀 増産圖謀.

#### 라. 需要擴大開發

밤·버섯類·도토리 등의 樹實類의 內需를 創出하는 同時에 海外市場의 深化와 開拓으로 輸出需要 増大에 努力.

#### 마. 流通體系 確立

中間商人의 排除로 生産者와 消費者를 同時에 保護하고 適正價格維持와 有能한 輸出業者만의 參與로 去來秩序를 確立.

確定하였다.

總造成面積: 643千ha(1959~1977造成)

現存面積: 552千ha(46千ha는 用材林 및 樹種更新)

表 10. 年度別 燃料生産 및 分配實績

(單位: 4M/T)

1977	1978	1979	1980	1981	1982計劃	備 考
738	1,248	1,376	1,423	1,200	1,200	( ) 內는 燃料扶養育産物
(120)	(178)	(367)	(561)	(706)		

C. 管理上の問題点

- (1) 分収契約에 의한 地上權의 維持至難.
  - 所有權 變動時의 分収權 承繼.
  - 合意契約分과 不在山主分의 地上權 設定登記.
- (2) 一次分収契約期間(25年) 經過 後의 二次契約 不應時의 未回收費用의 辯濟.
- (3) 山主意思에 反한 燃料林策定과 施業制限에 따른 山主 不滿(自己本位의 施業·轉賣·分収率 等)

D. 問題点에 對한 今後對策

- (1) 地上權 維持
  - 代執行命令에 의한 施業分 134,433件 330,970 ha는 早速한 時日內 地上權設定登記를 完了하고,
  - 合意에 의한 施業分 76,634件 210,514 ha는 山主와 協議로 登記 또는 費用辯濟로 一齊處理.
- (2) 二次契約更新 및 山主不滿分은 先費用辯濟·後解除措置